

‘바가지 상훈’ 관광전남 찬물 끼얹는다

도내 축제장 등 찾은 방문객들
음식·숙박료 폭리 원성 빗발
체전 앞둔 목포 등 ‘최대 5배’
메가이벤트 우려...자정 시급

전남을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음식값과 숙박비 폭리 등 ‘바가지 상훈’에 대한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전남 방문의 해 2년차를 비롯,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체전 등 굵직한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전남에 대한 비호감이 다양한 이벤트 성공개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 관련 업계의 자정 결의대회 등 더 늦기전에 ‘관광 전남’을 위한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4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9월 국제수목비엔날레, 10월 전국체육대회·국제농업박람회 등 올해 도내 전역에서 이른바 ‘4대 행사’가 잇따라 개최된다. 김대중평화회의와 국제남도음식문

화란잔치 등 굵직한 행사도 이어지고 크고 작은 지역축제도 연중 100여개 개최된다.

당장 광양매화축제장 등 도내 축제장과 주요 관광지에는 코로나19 이후 여행과 휴식을 만끽하려는 국내외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위 ‘한철·한탕’을 노리는 ‘바가지 요금’도 기승을 부리면서 관광객들의 불만이 잇따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실제 유튜브·디시인사이드·보배드림·네이버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는 전남 주요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음식과 숙박료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글이 수십여개 올라와 있고, 관련 댓글도 잇따르고 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린 광양 매화축제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들이 평균시세보다 크게 높다는 글과 함께 해당 음식 사진, 가격표 등이 올라왔다. 관광객 A씨는 “최근 열린 광양 매화축제에는 해물파전이 2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고, 상차림도 부실했다”며 “만 곳에서 매화축제를 즐기기에 광양을 찾았지만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는 10월 열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둔 목포시

는 외지 방문객을 겨냥한 바가지 숙박요금으로 인한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체전 참가를 위해 목포시를 방문해야 하는 외지인들과 선수단은 일부 숙박업소들이 사전예약을 받지 않고 평상시 금액보다 2~5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실정을 호소하고 있다.

숙박예약을 위해 목포를 방문한 선수단 B씨는 “경기가 열리는 목포지역에 숙소를 준비해야 하는데 경기장 인근 숙박업소들이 당일이나 하루 전만 예약을 받는다면 배정장사를 하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며 “경기장과 조금 떨어진 곳도 2~5배 정도 높게 가격을 불러 인근 지역인 나주, 영암, 신안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앞으로 예정된 국제행사도 관련, 이전 바가지 요금 경험담을 올리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겠다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2026년 ‘여수 세계섬박람회’ 개최 관련 게시물에 네티즌 C씨는 “여수세계박람회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방문했지만, 관광지 인근 음식점 가격들과 숙박 가격이 평상시보다 3배 이상 높게 받아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앞으로는 유명한 행사가 열려도 두 번 다시 여수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2면에 이어짐 /임채민 기자

광주시, 5·18교육관 위탁기관 어찌나

특전사동지회 초청 분열 단초
부상자회 우선협상대상 선정
시민사회 ‘철회’ 주장에 고심

광주시가 5·18교육관을 운영할 위탁기관 선정

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역 시민사회 분열의 단초가 된 특전사동지회 초청 ‘대국민공동선언식’을 강행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교육관의 민간 위탁기간이 이달 말 만료됨에 따라 새 단체 선정

절차가 진행중이다.

민간 위탁기관 선정 공모에는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가 참여했으며 광주시는 전남대 교수, 시민사회 단체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18부상자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현재 5·18부상자회가 제출한 운영계획,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보완 심사가 진행중으로 결과는 빠르면 이달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 위탁할 교육관 사무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교육관 내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관리, 시설이용 안내와 이용료 징수, 시설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교육·숙박편의 제공 등이다. 2면에 이어짐 /김용현 기자

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보다 많아

만혼이 심화하면서 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 신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초반(40~44세) 여성의 혼인 건수는 1만949건으로 20대 초반(20~24세) 여성의 혼인 건수인 1만113건보다 많았다.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를 웃돌았다.

2021년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은 1만412건으로 연령대별 혼인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

년 이후 처음으로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9,985건)를 앞선 바 있다.

25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혼인 건수는 1997년 38만8,960건에서 2022년 19만1,690건으로 51% 감소했다. 특히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13만6,918건에서 1만113건으로 93% 줄었다. 반면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같은 기간 7,322건에서 1만949건으로 50% 늘었다. 20대 초반 여성 혼인 건수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동안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1.5배로 증가한 것이다. /홍승현 기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첫 날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 날인 20일 오후 광주 유스퀘어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김태규 기자

변호사 영입인사

저희 법무법인(유한) 맥은 이번에 서울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퇴임한 이은강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새로 영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3.

법무법인(유한) 맥

구성원 소개 : 박강희, 조재건, 서정암, 문방진, 구희승, 권오성, 신광섭, 차원영

■ 사 무 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6 법무법인(유한) 맥 4층
■ 대표전화 : (062) 232-8800
■ 업무개시일 : 2023. 3. 6.
■ 개업식일시 : 2023. 3. 23.(목) 14:00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정든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유한) 맥에서 대표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

- 전남 광양, 광주 동산초, 동성중, 광덕고 졸업
-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89학번)
- 사법시험 40회 합격,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서울고검, 춘천지검 인권보호관
- 광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 청원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 수원지검 공판송부부 부장검사
- 광주지검 목포지청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법무법인(유한) 맥 대표변호사 이은강 올림

2022년도 중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2023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등 세부사항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누리집(홈페이지)을 참조해주세요. (www.budamgum.or.kr)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콜센터
032-590-5093

자 원 순 환 제 도

폐기물부담금제도

동영상 메뉴얼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PR)

제도 교육자료

환경정보장제도

제도 안내 동영상